

동해안 어촌 생활어에 나타난 바람 명칭 명명법 연구*

김지숙**

|| 차례 ||

- I. 머리말
- II. 연구 방법 및 선행 연구
- III. 동해안 어촌 생활어에 나타난 ‘바람’의 의미 분화 기제와
분화 양상
- IV.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동해안 어촌 지역에서 사용되는 바람의 명칭을 대상으로 어휘의 분화 기제를 살펴보고, 분화 기제에 따라 명칭을 나눈 후 이에 따른 어휘의 분화 양상과 그 명명 방법을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바람 명칭은 사전상에 제시된 ‘동풍, 남풍’과 같은 어휘 외에도 다양한 어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어촌 생활어에서 나타나는 바람의 명칭을 모두 추출하여 그 의미 유형별로 구분한 결과, ‘방위’를 중심으로 한 의미와 형태를 바탕으로 ‘속도 및 세기, 모양과 성질, 위치, 지명, 계절, 시간’으로 어휘 확장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 국립국어원에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족생활어 조사 사업의 내용 중 김지숙(2010, 2011, 2012)의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본 내용은 김지숙(2010, 2011, 2012)와 조사 방법, 제보자는 동일하나 연구 주제에서는 차별화를 지닌다. 이 글은 한민족어문학회 학술대회(2015. 8. 21. 경일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듬은 것임을 밝혀둔다.

** 경성대학교 창의인재대학 교수

(국립국어원에서 시행한 민족생활어 조사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동해안을 담당한 연구원임.)

실질적인 어휘 조사를 한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어촌의 독특한 환경이 바람 명칭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고 바람 명칭을 명명 방식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점을 가장 많은 어휘가 나타난 방위 관련 명칭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늑새’와 ‘된새’는 모두 각각 북쪽과 동쪽을 의미하고 있어 하나의 방위가 아니라 두 개, 동쪽과 북쪽의 방위를 모두 지칭하고 있었다. 둘째, ‘새대’와 ‘마대’의 ‘새’와 ‘마’가 방위를, 뒤에 붙는 ‘-대’는 ‘쪽, 편’을 의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갈바람’의 하위 범주에 ‘동갈, 남갈, 댕갈, 처진갈’이 있으며, ‘갈바람’은 서풍 외에도 남풍을 가리킨다고 정리할 수 있었다. 넷째, ‘설악산내기, 설악산바람’은 모두 위쪽에서 불어오는 셋바람의 일종인 ‘웃고(굴)새’의 하위 범주이다. ‘웃고(굴)새’는 설악산이나 원산이 있는 북서쪽 또는 북쪽의 위쪽 지역에서 오는 바람을 가리키는 말로 바람의 진원지에 따라 그 명칭은 ‘원산내기(내이)’와 ‘설악산내기(바람)’로 분화되었다. 다섯째, ‘내바람’의 다른 명칭 중 특이한 것은 울릉도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청풍’이다. ‘댕갈청풍’과 ‘북청’과 관련된 ‘청풍’은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가리키는 말로 맑고 상쾌한 바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람의 명칭은 방위 외에도 속도 및 세기, 시간 및 계절, 모양과 성질, 위치, 지명의 범주와도 어울려 동해안의 특성을 보여주는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주제어 : 어촌 생활어, 바람, 의미 범주, 의미 분화, 어휘 항목, 분화 기제

I. 머리말

바람은 대기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공기의 움직임을 말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밀도 차가 클수록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고 공기의 온도 차가 클수록 바람의 속도는 강해진다. 이러한 바람은 예부터 풍어뿐만 아니라 생사와도 관련이 있어 어촌 지역에서는 다른 기상 요소보다 중요했다. 실제로 매년 음력 2월 초하루를 ‘영등날, 풍신(風神)일, 바람님날, 영등날’이라고 하여 신을 모셔 바다의 바람을

달래고 있었다. 이러한 점 때문인지 어촌 지역에서는 내륙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바람의 명칭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방향에 따라, 지역에 따라, 특성에 따라 그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어촌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지역과 달리 바람이 어로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므로 방향과 속도 이외에도 다양한 명칭으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글은 일차적으로 동해안 어촌 지역에서 다양한 의미로 실현되는 바람을 그 의미 분화 기제에 따라 바람의 분화 양상을 정리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작업 후 바람 명칭의 결합 환경, 의미적 특징을 고찰해 명명되는 방법을 살펴보는 데 이차적 목적이 있다. 즉 어촌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어휘를 통해 바람의 의미 분화 기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바람의 분화 기제와 그 생산성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바람의 분화 양상의 정도와 명명 방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립국어원의 민족생활어 사업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시행한 ‘기초어휘 조사’에 근거하여 동해안 지역의 세 개 지점인 강릉, 울릉도, 경주의 어촌에서 조사된 어촌 생활어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당시 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기초어휘 항목으로 ‘행위자, 환경, 어획물, 어로 도구, 어로 방법, 음식, 민속, 기타’의 8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바람의 명칭 분화를 알기 위해 환경 중심 항목을 중심으로 동해안 지역에 나타난 바람형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동해안 어촌 지역에서 사용되는 어휘 속에서 바람의 생산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 명칭의 명명 방식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촌 지역에서 사용하는 바람에 관한 낱말말을 통해 바람과 관련된 국어의 어휘 체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어휘 분화 양상을 그 특성에 따라 논의하고자 한다. 이처럼 어촌 지역의 어민을 대상으로 바람 명칭의 분화 기제와 그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어민들의 경험과 인지

를 반영한 어휘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언 연구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II. 연구 방법 및 선행 연구

2010년 1월 10일부터 2013년 10월까지 조사한 동해안 지역에 대한 조사는 크게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참고 문헌조사 및 선행 연구를 검토한 후, 문헌에 기록된 조사 어휘를 항목별로 수집하고 목록화하여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조사는 준비된 사진을 통해 1차 명칭을 확인한 후 준비된 질문지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 후 1차 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보자를 대상으로 하위 범주의 내용을 확장하는 2차 작업을 실시하였다.

경주 지역의 현지조사는 2010년 4월 26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는데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어촌 생활어에 대한 참고문헌 조사 및 선행 연구를 검토한 후, 문헌에 기록된 조사 어휘를 항목별로 수집하고 목록화하여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본격적인 현지조사는 5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연구자가 1달간 감포 지역에 방을 구해 거주하면서 이루어진 밀착조사를 통해 시행되었고 그 후 보완조사를 통해 자료를 보강하였다. 강릉 지역의 현지조사는 2011년 5월 27일부터 9월 25일까지 밀착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후 보완조사를 통해 자료를 보강하였다. 강릉 지역의 현지조사는 어촌 생활어를 채록하기 위해서는 강릉시에 위치한 어촌 마을인 ‘연곡면, 주문진읍’을 조사를 하였다. 울릉도의 현지조사는 2012년 1월 20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두 차례의 밀착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1월 20~27일, 7월 20~25일) 그 후 전화와 우편물 교류를 통한 보완조사를 통해 자료를

보강하였다. 울릉도는 현지조사의 지점을 울릉읍(도동, 저동, 사동), 북면(천부리), 서면(태하리)으로 설정하였고, 주생업인 오징어잡이를 대상으로 울릉도 전반의 어촌 생활 어휘를 모두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 지역 모두 조사 방법은 경험적이고 질적인 조사인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민속지적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목록을 지니고 있는 격식질문지를 중심으로 조사하던 방법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연구자가 융통성을 발휘하여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사 방법은 연구자와 제보자가 서로 간의 거리를 줄이고 라포(rapport)를 쌓은 경우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본 연구자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제보자의 집에서 숙식, 어로 행위 등과 같은 생활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심층밀착조사의 일환으로 연구자를 이방인 또는 관찰자로 생각하는 부분을 없앨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생활의 일면을 공개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유대감 형성에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제보자가 해당 어휘에 대한 설명할 때 연구자는 민속지적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질문지 항목은 물론 그 질문에 따른 하위 항목도 조사할 수 있었다.

본 조사는 어촌 생활어를 살펴보기 위해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직업인 ‘어부, 해녀’를 선정했다. 제보자들 모두는 30~50년 동안 어업에 종사한 해당 지역 거주자로 선정했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명칭뿐만 아니라 어촌 지역의 언어 특징도 살펴볼 수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제보자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제보자 정보

이름(성별, 나이) ¹⁾	거주 지역
전영호(남, 72)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
박영실(여, 64)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제주 출생 후 감포에서 46년 거주)
박옥자(여, 58)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
김혜수(남, 66)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
이판식(남, 66)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
최상길(남, 60)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
김방우(남, 62)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
최대암(남, 60)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
김수근(남, 58)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
주여조(남, 66)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
박일원(남, 87)	강릉시 주문진 연곡면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
김준래(남, 82)	강릉시 주문진읍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
박종석(남, 77)	강릉시 주문진읍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 부친의 고향은 양양)
신도출(남, 77)	강릉시 주문진읍 연곡면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
김진호(남, 61)	강릉시 주문진읍 연곡면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
최상익(남, 88)	강릉시 주문진읍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
박옥녀(여, 86)	강릉시 주문진읍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
조규월(여, 81)	강릉시 주문진읍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
정춘옥(여, 76)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읍에 60년 거주)
임영숙(여, 60)	강릉시 주문진읍 (서울 출생 후 34년 주문진읍에 거주)
이경우(남, 87)	울릉군 북면 천부리 (울릉도 북면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
견학용(남, 87)	울릉군 북면 천부리 (울릉도 북면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
임기학(남, 81)	울릉군 북면 천부리 (울릉도 북면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
정상권(남, 86)	울릉군 북면 천부리 (울릉도 북면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
강원도(남, 87)	울릉군 북면 천부리 (경북 청도 출생 후 75년 거주)
정익선(남, 70)	울릉군 북면 천부리 (북한 출생 후 60년 거주)
박봉식(남, 70)	울릉군 서면 태하리 (울릉도 서면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
김성호(남, 66)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울릉도 울릉읍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
김문관(남, 60)	울릉군 울릉읍 도동 (경북 군위 출생 후 50년 거주)
김세운(남, 56)	울릉군 서면 태하리 (울릉도 출생 후 현재까지 거주)
김형수(남, 56)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강원도 동해 출생 후 45년 거주)
강영길(남, 56)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제주도 출생 후 50년 거주)

그동안의 선행 연구는 크게 ‘어촌 생활어’와 ‘바람’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사회방언의 측면에서 어촌 생활어에 대한 대표적 연구는 이익섭(1976)과 최명옥(1980)을 들 수 있다. 이익섭(1976)과 최명옥(1980)은 사회방언학적 측면에서 어촌 지역과 농촌 지역의 언어를 비교 연구하였는데, 이익섭(1976)에서는 강원도 지역의 강릉과 양양을 대상으로 농촌과 어촌 지역의 방언을 사회언어학적으로 살펴본 바 있고, 최명옥(1980)에서는 경북 동해안의 영덕의 어촌 지역과 농촌 지역의 언어를 비교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전혜숙(2003)에서는 강원도 동해안 방언을 세대별, 직업별, 성별에 따라 비교하면서 농촌어와 어촌어의 차이를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글에서 다루는 ‘바람’ 명칭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왕한석(2012), 박성종(2008), 박정해(2013)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룬 바 있다. 생태환경적 어휘 중 바람에 대한 구분을 다룬 왕한석(2012)은 경남 지역인 통영시 사랑도의 어촌 지역을 조사한 언어지리학적 연구를 통해 어촌 나름의 독특한 어휘를 발견해 기술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어휘로는 ‘댄새, 새신마, 갈신마, 돈냉이, 새고개냉이’ 등이 있다. 박성종(2008:78)에서는 강원도 지역이 중심인 고성, 속초, 양양, 강릉, 삼척과 경상북도 울진 지역에서 사용되는 바람의 명칭을 간략히 정리한 바 있다.²⁾ 김지숙(2011, 2012, 2013)에서는 바람 명칭에 대한 동해안의 조사를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중의 한 항목을 통해 정리하였다. 한편 박정해(2013)은 건축 분야의 연구로, 옛 문헌에 나타난 “錦囊經에 나타난 바람의 의미와 논리성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바람의 명칭을 방위를 중심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이 외

1) 제보자의 나이는 조사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경주시는 2010년에, 강릉시는 2011년에, 울릉도는 2012년에 조사한 것이므로 현재의 나이와는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2) 이 중 다른 지역과 달리 경북 울진 지역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과거 행정구획상 강원도에 소속되었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에도 이승녕·전광용·최학근(1957:139-145), 홍순탁(1963:82-86), 장태진(1968), 왕한석(2009: 35-38), 왕한석(2010: 38-44)에서 바람에 명칭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³⁾ 그럼에도 이제까지 바람 명칭에 대한 보고가 주로 호남 지역의 어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특징적인 언어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그쳤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가치를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바람 명칭 명명법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음을, 또한 논의의 대상으로 다루어졌지만 방향을 기준으로 기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실제 어촌에서 사용되는 바람의 다양한 쓰임을 바람의 의미 분화 기제를 통해 다룬 후 그에 따른 명명법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Ⅲ. 동해안 어촌 생활어에 나타난 ‘바람’의 의미 분화 기제와 분화 양상

1. 바람 명칭의 범주와 의미 분류

어촌 지역인 강릉, 경주, 울릉도 지역에서는 바람의 명칭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었다. 그래서 바람은 불어오는 방위에 따라, 속도나 세기에 따라 바람의 이름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어촌에서 실제 사용하는 있는 바람의 목록을 추출한 (1)을 바람 명칭의 명명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바람의 의미상 범주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⁴⁾

3) 이승녕 외(1957), 홍순탁(1963)은 왕한석(2010) 『한국의 언어 민속지 2, 전라남북도 편』의 선행 연구를 재인용한 것이다.

4) 조사 대상으로 삼은 세 지역인 경주, 강릉, 울릉도는 동해안 어촌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강원도와 경상북도라는 차이점과 섬과 육지라는 차이점이 있다.

(1) 바람 명칭의 범주 분류

가. 바람의 방위에 따른 명칭:⁵⁾

(동풍) 동풍, 들바람, 섯바(파)람, 동새(풍), 동섯바람, 들분다, 이스바람
(동남풍) 남동풍, 동남풍, 갈바람, 남쪽하고동쪽생간에서부는기, 마대로 들어분다, 동갈, 을진(바람)

(남풍) 갈바람, 마파람, 남서풍, 오수바람, 남갈, 사이스바람
(남서풍) 남서풍, 하늬바람, 마대들바람, (마갈수)바람, 마대로 들어온다, 갈바람, 덴갈(바람), 치진갈(서풍) 서풍, 청풍(바람), 하느바람, 내바람, 내부는바람, 내분다, 내부는 것, 웨스바람

(북서풍) 북서풍, 서북풍, 북청, 청풍, 덴갈(청풍), 북서계절풍, 디갈기, 뒤갈기(바람), 웃고(굴)새, 설악산내기, 설악산바람

(북풍) 섯바람, 북풍, 북바람, 북새, 북청, 웃고(굴)새, 원산내기(내이), 노스바람

(북동풍) 섯바람, 북동풍, 동새, 인간풍, 마대로 들분다, 마대들바람, 새대로 들어오다, 새맷바람, 새대들바람, 들바람, 새대로들어오는거, 들어오는바람

나. 바람의 속도, 세기에 따른 명칭: 급새, 급풍, 왁새, 된새, 된갈⁶⁾

물론 지역에 따라 환경이나 방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이들 지역을 조사하면서 지역적인 차이보다도 동해안 어촌이라는 환경적인 공통점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들을 묶어서 다루기로 한다.

5) (1)의 바람 명칭의 범주 구분 중에서 구형태인 ‘남쪽하고동쪽생간에서부는기’와 동사형태인 ‘내분다, 내부는것, 새대로들어오다, 새대로들어오는기, 들분다, 마대로들어분다’는 그 형태만으로 보면 이름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이 지역에서는 이름을 나타내는 명칭과 이들 형태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를 함께 제시한다. 또한 바람 명칭의 전체 양상을 좀더 명확히 살펴보기 위함도 고려하였다.

6) 바람의 명칭에는 두 가지 명칭이 합성된 것이 종종 있다. 이 중 ‘된갈, 원산내기, 설악산내기, 설악산바람’은 두 가지 분류 체계가 혼합되어 있다. ‘된갈’은 세기(된바람은 ‘되다’는 의미는 세다의 의미로 나타나므로 세기로도 볼 수 있음.)와 방위에 ‘원산내기, 설악산내기, 설악산바람’은 풍향과 지명을 모두 나타내고 있는 바람의 진원지와 관련된 명칭이다.

다. 바람의 계절에 따른 명칭: 갈바람(된갈(덴갈), 처진갈, 갈바람 등), 북서 계절풍

라. 바람의 모양과 성질에 따른 명칭: 오방풍, 돌개바람, 돌풍, (회오리)바람, 호도로바람, 횃바람, 광풍, 순풍, 악풍, 청풍, 내바람, 빗바람

마. 시간에 따른 명칭: 밤마

바. 위치에 따른 명칭: 뒤바람

사. 지명에 따른 명칭: 원산내기, 설악산내기, 설악산바람

우리는 (1)에서 이미 알고있는 바람의 방위에 대한 명칭인 ‘동풍, 하늬바람, 갈바람, 북풍’뿐만 아니라 ‘을진, 오수바람, 북청, 마맷바람’과 같은 생소한 명칭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속도에 따른 명칭인 ‘실바람, 산들바람, 건들바람, 흔들바람, 왕바람’ 등은 나타나지 않고 ‘된새, 급새, 왁새’가 나타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이는 어촌이라는 지리적 환경으로 다양한 종류의 바람이 많은 까닭에 세기가 약한 바람보다는 강한 바람을 중심으로 어휘가 발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밤마, 오방풍, 원산내기(내이), 설악산내기’와 같은 특이한 형태도 찾아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또한 방위에서는 ‘셋바(파)람, 마대(맷)바람, ‘웃고(굴)새’가 서로 다른 두 지점의 방위를 가리키고 있어 이들의 분류만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바람의 명칭과 동일시하기 힘들도 알 수 있다. (1)을 통해 우선 어촌 지역에서 바람에 대한 어휘가 생산적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생산성으로 내륙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어형이 나타났다. 또한 (1)에서 추출한 의미를 바탕으로 바람의 명칭을 정리한 양상을 보면 방위를 기본으로 한 가장 원형적인 의미와 형태를 중심으로 부차적인 속도, 모양, 위치, 지명, 계절, 시간 등으로 점차 파생되었음도 생각해 볼 수 있다.⁷⁾ 이는 속도를 나타내는 ‘왁새’가 ‘북풍’을 의미하거나 지명을 나타내는 ‘원산내기, 설악산내기’가 ‘북풍’과 ‘북서풍’을 의

미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에서 제시된 명칭 중 대부분의 것은 사전에 등재되지는 않았는데 이는 <그림 1>의 《표준국어대사전》의 어휘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대략이나마 확인할 수 있다.⁸⁾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 바람 명칭의 분화 양상’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1〉 사전에 등재된 바람 이름

실제 어부와 해녀들의 어로 생활에 쓰는 어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바람의 의미 구분은 어부와 해녀들의 경험과 인지를 바탕으로 바람을 개념화

7) 우리는 어떠한 단어를 어휘부에 저장할 때 단어의 의미와 구조를 바탕으로 공통된 속성을 추출한 후 하나의 계열로 저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단어를 만들 때에도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공통된 속성을 중심으로 어떤 속성을 초점화하는가에 따라 다른 의미의 단어를 만든다. 단어의 의미를 파생하는 이러한 방법을 은유적 의미 파생이라고 하는데 바람 명칭 역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8) <그림 1>에 제시된 어휘는 사전에 등재된 방언형을 제외한 방위 관련 바람 명칭이다. 사전에 등재된 바람에 관한 모든 어휘는 아니지만 (1)에서 가장 발달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방위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휘를 중심으로 그 의미 계열을 나누어 보는 것은 어촌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람에 대한 인식을 통해 그 개념과 의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1)을 선행 어근의 의미에 따라 나타난 분화 양상을 각각의 의미 범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바람 명칭의 분화 양상

일반적으로 동서남북의 방향에 따라 바람을 동풍, 서풍, 남풍, 북풍으로 지칭하지만, 실제로 바람의 명칭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실제 조사에서 다수의 제보자를 만났지만 이들은 우리는 ‘서풍, 남풍, 북풍’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점은 제보자의 ‘있어도 그거는 사용 안 하는 기라. 그거 누가 촌사람들이 누가 나칩판 나꾸고 누가 열두나를 다 외우노 그 기라’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이들 명칭을 대신해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은 ‘들바람’, 북에서 서로 부는 바람은 ‘셋바람’, 서에서 동으로 부는 것은 ‘하느바람’, 남에서 동으로 부는 것은 ‘마파람’이라고 했다. 이 장에서는 세 지역에서 실제로 지칭하고 있는 바람 명칭을 (1)에서 구분한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바람의 풍향에 따른 명칭

다음은 동해안 세 지역에서 나타난 동풍에 대한 명칭이다.

(2) 가. **동쪽에서 부는 거 들바람** 아이가.(경북 경주, 최상길)

나. **동쪽에서 서쪽 부는 건 들불고**(강원 강릉 김진호)

다. **동쪽은 이스쪽**. 그니깐 **이스바람**.(경북 울릉도 김형수)

라. **동새풍이 셋파람이 불면 동새**. **동셋바람이** 분다. **동쪽은 동새**.(경북

울릉도 견학용)

동풍은 일반적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말한다. 세 지역에서 관찰된 바람 명칭에는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풍, 들바람, 셋바(파)람, 동새(풍), 동셋바람, 들분다, 이스바람’이 나타났다.⁹⁾ 먼저, 동풍을 나타내는 (2가)의 ‘들바람’과 (2나)의 ‘들불고’는 (1가)의 동풍의 ‘들바람, 들분다’와 서풍의 ‘내바람, 내분다’의 대응관계 속에서 보면 서로 의미적 관련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방향에 민감한 조류 중 동에서 서로 오는 조류는 ‘들물’로, 서에서 동으로 가는 조류는 ‘날물’로 표현하는 명칭에서도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들바람’의 동사형으로 볼 수 있는 (2나)의 ‘들불다’는 ‘들다(入)+불다’의 결합형으로 ‘들이불다(들이분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산쪽인 서쪽과 달리 동쪽인 바다쪽에서 바람이 들이분다는 의미로 섬 지역인 울릉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해안은 모두 ‘들바람’으로 나타났다.¹⁰⁾ (2다)의 ‘이스바람’은 울릉도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명칭으로 외래어의 영향으로 나타난 표현이다. ‘동쪽은 이스쪽’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동쪽을 나타내는 ‘이스트(east)’의 ‘t’를 제외한 부분이 ‘바람’과 결합한 형태이다. ‘이스트바람’이 아닌 ‘이스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것

9) 경북 경주에 경우 그러나 남서풍, 북동풍은 ‘동, 서, 남, 북’보다 더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셋바람, 하늬바람’과 같이 동, 서에 대한 명확한 명칭이 없는 방위라는 점에서 이들 명칭을 동남은 ‘갈바람’, 서남은 ‘하늬바람’, 북동은 ‘셋바람’으로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동, 서, 남, 북과 이들 사이의 방위에 대한 명칭이 혼용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보자 박영실은 북동풍을 ‘셋바람’이라고 했고, 제보자 김방우는 북풍을 ‘셋바람’이라고 해 제보자들 간의 차이가 있었다.

10) ‘동풍’을 동해안 지역 대부분에서 들바람이라고 하지만 울릉도 지역에서는 들바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지역에 따라 바람의 명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섬이라는 환경의 차이로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이 많아서 생긴 현상으로 판단된다.

은 바람 명칭에 대한 어부들 나름의 특이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방위를 ‘동서남북’ 외에도 ‘이스쪽, 웨스쪽, 사이스쪽, 노스쪽’으로 동서남북을 지칭하는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2라)의 ‘셋파람(셋바람)’은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도 동풍을 ‘셋바람’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형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2라)의 ‘동새, 동셋바람, 동새풍’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2라)의 ‘새, 셋’이 동쪽을 의미하는 ‘셋바람’에서 나온 것이라면 모두 동쪽을 의미하는 ‘동+새(셋)’의 결합형으로 동의중복형으로 강조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합성어는 북동풍을 나타내는 ‘늑새바람’의 ‘늑+셋바람’의 결합형인 ‘늑새’와 ‘뒸(덴)+셋바람’의 결합형인 ‘덴새’(왕한석, 2012)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보기에 이들 구성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늑새’와 ‘뒸새’는 모두 각각 북쪽과 동쪽을 의미하고 있어 하나의 방위가 아니라 두 개, 동쪽과 북쪽의 방위를 모두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다.¹¹⁾

동풍에 비해 북동풍을 나타내는 명칭은 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그동안 연구에서 ‘새-동, 하늑-서, 마-남, 뒸-북’ 등과 같은 대응 관계를 이룬다고 알려졌고, 그 중 ‘새’는 ‘동’을, ‘마’는(실제로는 마하) 남쪽을 가리키는 고유어로 인식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바람에 대한 연구가 서해안을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중심으로 일반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 박성중(1995:430)에서도 강릉 지역 농촌에서 ‘새’가 동쪽 외에도 북쪽을 가리키고 있음을 말한 바 있다. 본 연구의 주제가 이와 다른 범주에 있고 앞으로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

(예) 가. 동쪽이라 하쵸. 동새 동새.(경북 울릉도 김형수)

나. 돌아가는 기 동. 올진. 동새. 인간풍 북새.(경북 울릉도 박봉식)

- (3) 가. 새는 인간풍 이기. 동쪽하고 북쪽하고. **동쪽에서 북쪽 약간 땡가키는 기 인간풍이지.** 그라고 북쪽을 고서 조금 더 땡가키는 기 북새. 원칸 많으니까. 돌아가는 기 둥. 올진. 동새, 인간풍, 북새.(경북 울릉도 박봉식)
- 나. 어. 새대로 들어오는 건. 새대라 들어오는 거는 요 인제 **동쪽하고 생간에서 여기 들어오는 기.** 요기. 새땡바람. 새땡바람. 새대들바람 이라 그러지. 그렇지. 이거는 거의 **북동풍이지.** 아이. 마 마 마 마대로 들. 그러이 마대로 들분다 이러든 마대로 들분다 이러면 여 저저. **북쪽하고 동쪽하고 해가지고** 마대로 들분다 그러고. 이 들어오는 바람이 있어. 바람. 들바람이.(강원 강릉 김준래)

북동풍을 가리키는 말에는 앞에서 살펴본 ‘새바람, 동새’ 외에도 ‘인간풍, 새대로 들어오다, 새땡바람, 새대들바람, 들바람, 새대로들어오는거, 들어오는바람’이 나타났다. 이 중 (3가)의 ‘인간풍’은 북동풍에서도 북쪽과 가까운 방위에서 오는 바람을 가리킨다. 울릉도 지역에서만 나타난 ‘인간풍’은 ‘잉감풍’이라는 형태로 일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민족대백과사전》(1999)의 ‘지방풍’에 대한 설명 중 鬱陵島 獨島 踏查紀要(慶北大學校, 1977)에서 ‘북동풍’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잉감풍’을 제시한 바 있었다.¹²⁾ 이처럼 ‘인간풍’ 또는 ‘잉감풍’에 대한 형태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인간’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연구자가 체보자들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했지만 ‘인간은 인간이다.’라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3나)의 ‘새대로 들어오다, 새땡바람, 새대들바람, 들바람, 새대로들어오는거, 들어오는바람’은 모두 북동풍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인데 이들 어휘를 통해

12) ‘인간풍’이라는 이름에 대하여 풍수지리에서 종종 사용하는 나경(羅經)의 24방위에 따라 추정하면, 동북 방향을 ‘간인(艮寅)’ 이라고 지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인간풍’의 관계를 설명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들어오는바람’ 즉 ‘들바람’의 하위 범주를 보여주고 있다.¹³⁾ 즉 ‘새대로 들어오는지(새대로 들어오다)’ 아니면 ‘마대로 들어오는지(마대로 들분다)’에 따라 ‘새땃(들)바람, 새대로들어오는거’와 ‘마대들바람’으로 구분되고 이 중 ‘새대로 들어오는 바람’은 북동풍을 의미하고 있다. ‘새대’의 의미 역시도 북쪽을 의미하는 ‘새’와 관련지어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대’의 경우는 근대국어 일부 자료에 나타나는 ‘다히’라는 어형과 관련을 지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히’는 ‘쪽’이나 ‘편’을 의미하는 어형인데(예: 서다히로 보라보니<계축일기 108>) ‘다히’가 ‘ㅎ’ 탈락과 음절 축약에 의해 ‘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새대로 들어오는 바람’의 경우는 ‘동쪽으로(부터) 들어오는 바람’이라는 의미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남서쪽에서 오는 바람을 ‘마대로들부는기’로 말하는 (4)를 통해 ‘다히’와 ‘대’의 관련성을 다시 한번 추정할 수 있다.

(4) 가. 이 마대로 들. 들부는 기고. 그러이 마대로 들어부는 것이 **남쪽하고**
그러이 남쪽하고. 어. 마대로 들어분다 이러지. **남쪽하고 동. 저 뭐**
야 저 서쪽하고 마대들바람. 어. 아이. 마 마 마 마대로 들. 그러이
마대로 들분다 이러믄 마대로 들분다 이러면 여 저저. 북쪽하고 동

13) 사전에서 ‘들바람’은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육지와 바다의 관계에 기본을 둔 것이지 ‘방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즉 ‘들바람’은 동풍 외에도 북동풍, 동남풍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어민들은 ‘들바람’은 사전상의 의미와 동일하게 ‘바다쪽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었고, ‘내바람’은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을 의미하고 있었다. 이는 동해안 어촌 사람들이 동쪽인 바다와 서쪽인 산쪽을 바탕으로 방위를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한 바람 명칭이 자연스럽게 방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뒤에 제시된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방위를 가리키는 조사자의 질문에서도 이러한 명칭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쪽하고 해가지고 마대로 들분다 그리고. 이 들어오는 바람이 있어.
바람. 들바람이.(강원 강릉 김준래)

(4)의 ‘마대’는 ‘마파람’에서 남쪽을 지칭하는 ‘맞(마)’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앞에서 ‘새대’의 의미를 북쪽을 의미하는 ‘새’와 관련지어 볼 수 있는 것처럼 ‘마대’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찾기는 어렵지만 남서풍을 의미하는 ‘마대(들)바람’은 남쪽과 관련있는 ‘맞(마)’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새대’와 ‘마대’의 ‘새’와 ‘마’가 방위를 가리킨다면 뒤에 붙는 ‘-대’가 ‘쪽, 편’을 의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5)에서는 ‘동남풍’을 ‘마대로 들어분다’로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가. 그러이 마대로 들어분다 하는 기 인제 맞바람하고 여 동쪽하고 상간 저 남쪽하고 동쪽하고 생간에서 부는 기. 여기 인제. 요거는 인제 여기서 보통 부르기는 이~ 그니까네 이 뭐야. 인제 남동. **남동풍으로** 인제 부르지.(강원 강릉 김준래)

나. 북을 부는 거는 남동풍이고. 저 갈바람.(경북 경주 김방우)

다. 남쪽에서? 남동풍인데. 남동풍이라 하기도 하고 여 동남풍이라 하기도 하고.(경북 울릉도 김성호)

라. 동간. **남동 간에 부는 거는 동갈이라**.(경북 울릉도 김성호)

마. 이 사이에 아 울릉도에서 그 쓰는 건 을진바람 분다 그랬어. 을진. 을진은 **남동풍 아닌교 남동**.(경북 울릉도 김형수, 박봉식)

(5가)의 동남풍을 의미하는 ‘남쪽하고동쪽하고생간에서부는기’는 ‘마대로 들어분다’에서 남풍을 의미하는 ‘맞바람’과 관련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마대(들)바람’이 남서풍뿐만 아니라 남동풍도 가리킬 수 있음도 (4)와 (5)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¹⁴⁾ 한편, 동남풍을 경주 지역에서는 (5나)의

‘갈바람’으로, 울릉도에서는 (5라, 마)의 ‘동갈, 을진(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 중 ‘동갈’은 동쪽을 의미하는 ‘동’과 남쪽을 의미하는 ‘갈’의 결합 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남풍을 의미하는 ‘남갈’이, 북서풍을 나타내는 ‘댄갈’이 있어 ‘동새’와 동일하게 남풍과 서풍을 모두 의미하는 두 가지 의미로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¹⁵⁾ 일반적으로 서풍을 의미하는 ‘갈바람’을 제보자들은 ‘북새, 북풍’과 대응시켜 남풍으로 표현하면서, ‘여름에 갈바람이 불면 고기가 안 잡힌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 갈 무렵에 부는 갈바람의 특징과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5마)의 ‘을진(바람)’은 동남풍 중 남쪽에 치우쳐서 부는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을진’이 지니는 의미 역시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제보자들의 말을 통해서 ‘인간풍’은 북동풍 중에서 동쪽보다는 북쪽으로 더 가까운 바람을, ‘을진(바람)’은 동쪽보다는 남쪽으로 더 가까운 바람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5라)의 ‘동갈’과 동일한 구성을 보이는 표현이 남풍을 가리키는 명칭에서도 나타나기도 했다. 다음의 (6)은 남풍의 명칭을 보인 것이다.

- (6) 가. **갈바람**도 이기 마파람을 보고 갈바람이라 한다.(강원 강릉 김준래)
 나. **남풍이지**. 갈바람. 남서풍.(경북 울릉도 정상권, 견학용, 임기학)
 다. 남갈은 남쪽에서 부는 기지.(경북 울릉도 김성호)
 라. **남풍이지**. **남쪽에서 부는 거**는 그냥이 저 뭐 저 뭐야. 그냥이사 오수바람 분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답에 여기 남서쪽에서 오는 바람이 있어요.(경북 울릉도 정상권, 견학용, 임기학)

14) 그래서 경주에서는 남동풍을 ‘갈바람’이라고도 하지만 울릉도에서는 남풍과 남서풍을 모두 ‘갈바람’이라고 칭하고 있었다.

15) 이에 대해서는 (6)에서 그 예를 제시하기로 하겠다.

(6)에서 나타난 ‘갈바람, 마파람, 남갈, 오수바람’은 모두 남풍을 가리키는 말이다.¹⁶⁾ 다른 명칭과 달리 남풍은 (6가)의 ‘갈바람’ 또는 (6나)의 ‘마파람’으로 한정적인 어휘만이 나타났다. (6)의 어휘 중에 (6다)의 ‘남갈’은 ‘남+갈(남쪽)’의 구성으로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의미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갈바람’은 서풍을 의미하지만, 동해안 지역에서 나타난 ‘갈’은 ‘남쪽’을 의미하는지, ‘서쪽’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갈바람’이 ‘남풍’과 ‘남서풍’을 각각 지칭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보면 ‘갈바람’의 하위 범주에 ‘동갈, 남갈, 댕갈, 처진갈’이 있으며, ‘갈바람’은 서풍 외에도 남풍을 가리킨다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풍은 남쪽을 의미하는 사우스(south)와 관련한 ‘사이스바람’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6라)의 ‘오수바람’의 ‘오수’의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의미는 남풍을 가리키고 있음을 제보자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¹⁷⁾ 이러한 남풍은 주로 여름에, 또는 가을에도 부는 바람으로 알고 있었다.

우리는 (4)에서 ‘마대(들)바람’은 남쪽과 관련있는 남서풍을 의미한다고 한 바 있다. 남서풍에 대한 다른 명칭을 (7)에서 더 살펴보기로 하자.

(7) 가. 그 다음은 **남서풍은 하늬바람**.(경북 경주 김해수)

나. **남쪽하고 동. 저 뭐야 저 서쪽하고** 마대들바람.(강원 강릉 김진호)

다. 어. **맞쪽하고** 저저 마 들어오는 걸 마대로 들어온다 이러지만 여기서 보통 그 하는 기 아 이기 맞. 뭐야 저. **마갈수바람** 분다 이런다

16) ‘마’는 남(南)쪽을, 남향 집에서 마주보는 쪽은 ‘마, 맞’이다. 한편 ‘바람’이란 말은 ‘마파람’, ‘날파람’과 같이 그 앞에 놓이는 말의 환경에 따라 ‘파람’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중 ‘마ㅎ’+바람의 구성으로 인해 ‘마파람’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17) 학술대회 당시 토론자께서는 이에 대해 ‘갈바람’은 약하고 시원한 바람으로, ‘오수바람’의 ‘오수’는 정말 낮잠을 의미하는 시원하고 서늘한 바람이 아닐까 하는 추측의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 마갈수.(강원 강릉 김준래)

라. 마대로 분다는 거는 거 마. 마대로 내분다 하지. 마대. 그 인제 서쪽 하고 서쪽하고 인제 그러이 북쪽하고. 마대가 가만 있어봐. 마대바람이라고. 그러이 마뎃바람이고. 그러면 요거는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게 그거 되겠다. 북. 동 뭐야. 남으로 해놨네. 이.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요기 인제 남서풍이지.**(강원 강릉 박종석)

마. 남풍이지. 갈바람. **남서풍**. 그 답에 여기 남서쪽에서 오는 바람이 있어요. 고걸 보고 여 울릉도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갈바람이라 그래요. 야~ 이 철에 없는 이 갈바람 분다 이래요. 여름. 여름에는. 여름에는. **남서풍이가**. 뭐이 서풍이 여름에는 이~ 북동풍도. 자주 불고. 남서풍도 자주 불고 그렇죠.(경북 울릉도 정상권, 전학용, 임기학, 김성호)

바. **서쪽은 여 저저 뭐 이 바람을** 거의 댄갈바람 분다 이래. 울릉도 용어로. 그래 배에서 요즘은 남서풍 이리지만은 아까 얘기하지만 주로 **남서쪽에서 불고오는 게 남서풍 아님니까**. 이게 갈바람이다 이래. 그것도 **서쪽으로 많이 땡기면 댐갈**. 남쪽에서 땡기면 쳐진갈. 그 답에 또 동쪽으로 더 땡기면 동새. 북쪽으로 올 때는 북새. 더 인제 완전 동쪽에서 북쪽으로 약간 땡기면 뭐 저 인간풍.(경북 울릉도 김형수, 박봉식)

사. **남쪽을 빼면은** 쳐진갈이고.(경북 울릉도 박봉식)

(7가)의 ‘하늬바람’은 경주 지역에서는 남서풍을 가리키는 말이고, (7나, 다, 라)의 ‘마대(들)바람, 마갈수(바람), 마뎃바람, 마대로 내분다’은 강릉 지역에서 사용하는 표현인데 주로 봄에 부는 바람을 말하고 있었다. (7마, 바, 사)의 ‘갈바람, 댐갈(바람), 쳐진갈’은 울릉도 지역에서 나타난 남서풍 명칭이다. 울릉도 지역에서 남서풍은 주로 봄과 여름에 많이 나타나며 4월에 가장 많이 분다고 한다. 이 중 ‘마대(들)바람, 마갈수(바람), 마뎃바람,

마대로 내분다'는 '마대들바람'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들바람'의 하위 범주로 '새대로 들어오다, 새땃(들)바람, 새대로들어오는거'와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는 표현이다.¹⁸⁾ (7나)의 '마대들바람'에 대한 명칭은 (4)의 '마대로들부는기'와 동일하게 남서쪽에서 오는 바람을 말하고 있었다. 또한 남서풍을 (7마)의 '갈바람'으로 지칭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바람에 민감한 어부와 해녀들이 '동남풍, 남풍, 남서풍'을 모두 '갈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갈'이 남쪽을 지칭하고 있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서쪽을 가리키는 '갈'이 남쪽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7바)의 '댄갈(바람)'은 주로 봄에 부는 바람으로 남쪽보다는 서쪽으로 치우친 바람을, (7사)의 '처진갈'은 서쪽보다는 남쪽으로 더 치진 것으로 모두 남서풍을 가리킨다. 한편 바람 명칭의 선행 어근은 '처진갈'의 '처지다'라는 동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립성이 있는 명사이다. '처진갈'은 동사 어간 '처지-'에 관형사형 '-ㄴ'의 결합 후 '갈'이 결합된 형태이다. '처진갈'의 의미 역시 서쪽에서 아래 방향인 남쪽으로 치진 바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지다'라는 동사의 의미인 '위에서 아래로 축 늘어지다'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댄갈'이라는 표현은 남서풍 외에도 북서풍을 가리키기도 했는데 다음의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가. 이진 뭐라 불러. **북서풍이라 안 하고** 우리 울릉도에서만 쓰는 거.

댄갈은 인자 갈바람에서도 좀 이렇게 땡기부는 걸 댕갈. 인자 서쪽으로 많이 땡기믄. 남에서 서쪽으로 많이 땡기믄 댕갈. 댄갈청풍이고. 들어 오이소.(경북 울릉도 견학용, 김형수, 박봉식)

나. 북청. 청풍. 청풍 그라지 뭐. **북서쪽에서 부는 걸 북청** 터졌다 이래.

북청. 북청.(경북 울릉도 임기학, 강원도, 김형수)

18) 앞서 살펴본 '들바람'의 하위 범주이다.

다. 디갈기라는 건 겨울게 왜. 저저 겨울게는 북바람도 아니고 이 내바람도 아니고 **고 상간에서 부는 바람이**. 인제 그래 치른 일을 할 거 같은 일이 저저 뭐야 **북서풍이지**. 북서풍. 이거는 뒤갈기바람 이란 그래. 응. 뒤갈기. 디갈기라는 건 겨울게 왜. 저저 겨울게는 북바람도 아니고 이 내바람도 아니고 고 상간에서 부는 바람이. 인제 그래 치른 일을 할 거 같은 일이 저저 뭐야 북서풍이지. 북서풍.(강원 강릉)

라. 북쪽에서로 남쪽으로 불어가는 셋바람이고 웃고새. 여기서 이리 보면 저 보면 높은 산에 보면 삼형제봉이라고 있어. 삼형제봉. 그 저 옛날부터 삼형제봉이었는데 거기서 바람이 나오는 것이 거 설악산내기라고 그 저 설악산 저 우리 야영 설악산 있지. 설악산 있지 설악산바람.(강원 강릉 김준래)

마. 인제 그래 치른 일을 할 거 같은 일이 저저 뭐야 북서풍이지. 북서풍. 내려쨌다는 기 이기 인제 겨울게 이저 뭐야. 저 그 북서계 절풍. 북서계절풍이 오를 적에 그기 내려쨌다는 그 말이지. 바람이지.(강원 강릉)

‘북서풍’을 가리키는 말에는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서풍, 서북풍, 댜갈청풍, 댜갈, 북서계절풍, 디(뒤)갈기(바람), 설악산내기, 설악산바람’이 나타났다. 이 중 (8가)에 나타난 ‘댜갈’은 남서풍 외에도 북서풍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한 바 있다. ‘댜갈’은 ‘댜(뒤)+갈’의 구성으로 북쪽을 가리키는 ‘댜(뒤)’과 서풍을 가리키는 ‘갈’의 복합어라고 할 수 있다. ‘댜갈’이 남서풍을 가리킬 때와 북서풍을 가리킬 때 차이점이 있었는데 북서풍을 지칭할 때는 ‘댜갈’ 외에도 ‘댜갈청풍’으로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바람은 주로 가을에 많이 부는 북서풍이다. (8나)의 ‘북청’은 서풍을 의미하는 ‘청풍’과 ‘북풍’의 결합형으로 볼 수 있으며¹⁹⁾, (8다)의 ‘디(뒤)갈기(바람)’는 겨울철에 많이 부는 바람으로 뒤쪽에서 온다는 의미를 지닌다. ‘뒤’를 의미하는

‘뒤(디)’와 강원도 지역에서 북서풍을 나타내는 ‘갈기’의 결합으로 보인다. ‘디갈기’에서 ‘갈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서풍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8다)에서 볼 수 있듯이 ‘뒤갈기(바람), 디갈기’로 나타나고 있었다. (8라)의 ‘설악산내기, 설악산바람’은 모두 위쪽에서 불어오는 셋바람의 일종인 ‘웃고(굴)새’의 하위 범주이다. ‘웃고(굴)새’는 설악산이나 원산이 있는 북서쪽 또는 북쪽의 위쪽 지역에서 오는 바람을 가리키는 말로 바람의 진원지에 따라 그 명칭은 ‘원산내기(내이)’와 ‘설악산내기(바람)’로 분화되었다. 이처럼 특정 지명이 바람에서 나타나는 표현은 ‘원산내기(내이)’를 말하는 북풍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박성종(1995:429)에서는 강릉 안인 지역을 조사하면서 ‘-매기’가 결합된 ‘원산매기, 설악산매기’를 확인한 바 있었는데 이 역시도 같은 시점에 조사한 고성군과 속초시 지역의 방언형에는 ‘원산매기, 온산내기’로 ‘-내기’의 형으로도 나타나고 있어 ‘-내기’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북서풍은 (8마)와 같이 ‘북서계절풍’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북청’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청풍’은 서풍을 가리키는 말로 나타나기도 했음을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 (9) 가. 서쪽에서는 청풍이라고 하나. 서쪽은 **서풍**. 그렇게도 쓰고 청풍바람 분다 이렇게도 쓰고. 여 **서쪽에서** 청풍바람 분다 이라고. 청풍. 북청 뒤편. 아이지. 청풍은 서풍을가 청풍이라 하고.(경북 울릉도 견학용, 견학용, 김형수)
- 나. 고 다음에 인자 **서쪽에서 바다로 부는 거는 하느바람**.(경북 경주)
- 다. 주로 **가을개는 내바람이** 그래 좀 살살 불지. 셋바람. **서쪽에** 내부는 바람.(강원 강릉 김준래)

19) 다음의 (9)에서 ‘청풍’을 확인할 수 있다.

라. 그레 내바람이 **서풍이여**. 바람이 저 이 뭐야 터에서 내불면 아 바람
이 잘 내부네 이리지. 셋바람. **서쪽에 내부는 바람**. 그 이제 내. 내
부는바람. 서쪽은 뭐이 **내분다고**(강원 강릉 김진호)

서풍을 가리키는 명칭에는 ‘서풍, 청풍(바람), 하느바람, 내바람, 내부는 바람, 내분다, 내부는것’이 나타났다. 이 중 (9가)의 ‘청풍바람, 청풍’은 울릉도 지역에서 서풍을 가리키는 것으로 (9나)의 ‘하느바람’과 (9다)의 ‘내바람, 내부는바람’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었다. 이 중 ‘내바람, 내부는 바람’의 ‘내’는 ‘나가다(出)’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산쪽인 서쪽과 달리 동쪽인 바다쪽에서 바람이 나간다는 의미로 나타났다. 그래서 다른 말로 ‘내부는것’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강원도의 강릉 지역의 제보자들은 이를 까폴 떨기가 올 때 부는 바람, 또는 서쪽인 산쪽에서 오는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제시한 것처럼 서풍은 서쪽을 의미하는 웨스트(west)와 관련한 ‘웨스바람’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중 ‘내바람’의 다른 명칭인 ‘청풍’은 울릉도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었는데, 동해안의 경우 동쪽보다는 서쪽에서 부는 바람의 성질이 일반적으로 상쾌한 느낌을 주므로 붙여진 명칭이라 판단된다. 즉 ‘서쪽에서 부는 상쾌한 바람’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청풍’과 관련된 (8가)의 ‘덴갈청풍’과 (8나)의 ‘북청’은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가리키는 말로 맑고 상쾌한 바람을 가리키고 있었다.²⁰⁾ 다음의 (10)은 북풍에 관한 명칭을 제시한 것이다.

20) 박정해(2013:86)에서는 문헌에 나타난 바람의 명칭을 살펴본 바 있는데 ‘동남풍’을 ‘청명풍’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울릉도에서 서풍을 의미하는 ‘청풍’이 방위에 따른 명칭이면서 해당 지역을 기점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성질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위를 나타낸 질문에서도 서쪽을 ‘청풍’으로, ‘청풍’ 외에도 ‘덴갈청풍’, ‘북청’과 같은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성질만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0) 가. **셋바람은 북풍이지.** 디갈기라는 건 겨울게 왜. 저저 겨울게는 북바
람도 아니고 이 내바람도 아니고 고 상간에서 부는 바람이. 인제
 그래 치른 일을 할 거 같은 일이 저저 뭐야 북서풍이지. 북서풍.
 해안으로 가는 거 보고 북풍이라 하지. 북풍. 북바람 북풍.(강원
 강릉 김준래)

나. **북쪽에서로 남쪽으로 불어가는 셋바람이고.**(경북 경주 전영호)

다. 육지 걸으면 거의 셋바람 맞바람 들바람 뒤편. 여기 울릉도 여기에
 용어를 쓰면은 전부. 이 바람을 뒤라고. **북쪽에서 부는 바람은**
 야~ 이 셋바람 분다 이래요.(경북 울릉도 강영길, 김형수)

라. **북에서 남에 남으로 불 때 무슨 셋바람이라 카는데 악새.** 그런 겁니
 다. 예. 셋바람이라 카는 거는 악새라요. 악새. 한참을 갑자기 옵니
 다. 갑자기 와요. 엄청 세게 옵니다.(경북 경주 주여조)

마. 돌아가는 기동. 을진. 동새. 인간풍 **북새**.(경북 울릉도 박봉식)

바. 원산내기. 응 이거 여서 부르기는 설악산내기. 설악산바람. 바람이
 구나 그래. 그래 웃굴새가 인제 거저. 거저 나오지. 마 다 포함된다.
 웃고새는 두 거. 두 가지.(강원 강릉 김준래)

(10가)의 ‘북바람’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으로 주로 겨울에 많이
 부는 바람이다. (10나, 다)의 ‘셋바람’은 ‘북동, 북서, 서북, 북’에서 나타난
 북쪽을 말하는 것으로 북풍을 말한다. 이러한 셋바람의 하위 범주에는 앞
 서 제시된 ‘동새, 웃고(굴)새’와 (10라)의 ‘악새’, (10마)의 ‘북새’가 있는데
 하위 범주의 발달을 통해 동해안 지역에서 가장 발달된 바람의 형태임을

區 分	東北	東	東南	南	南西	西	西北	北
『呂氏春秋』	炎風	滔風	薰風	巨風	淒風	飈風	厲風	寒風
『說文解字』	融風	明庶風	清明風	景風	涼風	閭闔風	不周風	廣漠風
『史記』	條風	明庶風	清明風	景風	涼風	閭闔風	不周風	廣莫風
『淮南子』	炎風	條風	景風	巨風	涼風	飈風	麗風	寒風

짐작할 수 있다. 이 중 (10라)의 ‘왁새’는 갑자기 터져서 확 오는 바람 중 아주 센 바람을 말한다. ‘바람이 갑자기 나오는 걸 {왁새라} 그래 왁새 여 여기서 우리 야 {왁새 터졌다} 이래 이야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갑자기 태풍처럼 몰아쳐 바다가 순식간에 변하는 바람으로 이 바람으로 인해 어촌 지역에는 제삿날이 같은 집이 여러 집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셋바람의 일종으로 보면 ‘왁+새’의 결합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때 선행 어간 ‘왁’이 자립성을 띤 명사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어원을 살펴보기 어렵다.²¹⁾ 앞서 제시한 것처럼 북풍은 북쪽을 의미하는 노스트(nost)와 관련한 ‘노스바람’으로 부르기도 했다. 한편, 북쪽 위에서 오는 바람을 말하는 (10바)의 ‘웃굴새’는 앞서 제시된 (8라)의 ‘웃고새’와 같은 것으로 위쪽에서 오는 셋바람을 가리킨다. 의미를 고려하면 ‘웃(윗)+곳+새(셋)’의 구성으로 파악된다. 셋바람의 일종인 ‘웃굴새’는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 그 지명이 ‘원산내기(내이), 설악산내기(바람)’로 나타났다. ‘웃고새’ 중 지명에 따른 명칭으로도 볼 수 있는 ‘원산내기(내이)’와 ‘설악산내기(바람)’은 지명에 따른 명칭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2) 바람의 속도, 세기에 따른 명칭²²⁾

바람은 속도와 세기에 따라서도 그 명칭이 분화되기도 했는데 (11)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21) ‘왁새’의 경우, 속도와 세기와 관련된 명칭인 ‘급새’와의 대응 관계를 생각해 부사 ‘왁’을 생각해 보면, ‘왁’은 ‘여럿이 한곳으로 갑자기 몰리는 모양’을 뜻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만을 제시해 본다.

22) 속도와 세기는 바람의 성질의 하위 속성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바람은 속도와 세기가 일반적으로 바람 명칭의 분화 기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로 분류하였음을 밝힌다.

- (11) 가. 바람이~ 갑자기 나오는 걸 악새란 그래. 악새. 여. 여기서 우리.
 야 악새 터졌다 이래 이야기하고. 악새. 글쎄. 갑자기 엄청 센 거
 지.(경북 울릉도 김형수)
- 나. 북에서 남에 남으로 불 때 무슨 섯바람이라 카는데 악새. 그런 겁니
 다. 예. 섯바람이라 카는 거는 악새라요. 악새. 한참을 갑자기 옵니
 다. 갑자기 와요. 엄청 세게 옵니다.(경북 경주 최상길)
- 다. 악새란 거는 북쪽에서 갑작시리 나오는 거. 급새고 악새고 한 가지
지.(강원도 강릉 김준래)
- 마. 바람 풍자 아니가. 급풍.(경북 울릉도 견학웅)
- 바. 급새가 악새라. 악새. 악새를 가지고 급새라.(경북 울릉도 강영길,
 김형수)
- 사. 된새 섯바람이라고요. 된새 여기는 또 섯바람.(경북 울릉도 박봉
 식)

(11가, 나)의 ‘악새’는 북에서 서로 부는 바람 중에서 굉장히 센 바람으로 다른 말로 ‘섯바람’이라고도 한다. 섯바람 중 가장 센 바람에 속하는 ‘악새’가 불면 사고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장 조심하는 바람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주로 부는 북풍은 바람의 세기가 강한데 그래서 ‘악새’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다. (11다)의 ‘급새’와 (11마)의 ‘급풍’은 급하게 부는 바람을 가리키는데 대부분의 제보자는 ‘급풍’, ‘급새’와 ‘악새’를 동일한 말로 보고 있음을 (11다)의 ‘급새고 악새고 한 가지지’와 (11바)의 ‘급새가 악새라’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급하게 빨리 왔다가 가는 바람이라는 의미로 ‘급새’가 나타나기도 했었다. (11사)의 ‘된새’는 ‘되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센 바람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강한 바람을 나타내는 북풍, 즉 섯바람을 말하고 있었다. 제보자들은 ‘악새, 급풍, 급새, 된새’를 동일한 범주로 묶어서 설명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악새’, ‘된새’는 강풍으로,

‘급새’는 급하게 왔다 가는 바람인 ‘급풍’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속도에 따른 명칭인 ‘실바람, 산들바람, 건들바람, 흔들바람, 왕바람’ 등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촌이라는 지리적 환경으로 다양한 종류의 바람이 많은 까닭에 세기가 약한 바람보다는 강한 바람인 ‘급새, 악새, 급풍, 된새’를 중심으로 어휘가 발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바람의 시간 및 계절에 따른 명칭

다음은 바람의 계절에 따른 명칭을 제시한 것이다.

(12) 가. 그렇쥬 북서풍 있고 북동풍 있고 남동풍 있고, 그니깐 봄에는 주로
인제 오는 바람이 남동풍이 많이 오고, 인제 봄가을에는 북서계절
풍이 오고, 겨울에는 인제 북동풍이 인제 많이 오고.(강원 강릉 김
진호)

나. 갈바람도 이기 마파람을 보고 갈바람이라 한다.(강원 강릉 김준래)

바람을 분류할 때 방위도 중요하지만 전통적으로 계절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앞서 북서풍에서 제시한 바 있는 (12가)의 ‘북서계절풍’은 주로 봄 또는 가을에 북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말하는데 주로 봄과 가을 이 두 계절에 주로 분다고 한다. 그래서 특정 계절에 분다는 의미에서 ‘북서계절풍’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12다)의 남풍을 주로 의미하는 ‘갈바람’도 주로 여름과 가을에 부는 바람으로 계절과 관련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갈바람’은 ‘가을바람’이 줄어들어 형성된 어형으로, 이것이 가을에 부는 바람이 주로 남풍이어서 갈바람이 남풍을 의미하게 되었고, 북풍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바람으로 볼 수 있다.²³⁾

한편 바람은 계절보다 더 세분화된 시간의 범주와도 어울려 나타나기도 했다.

- (13) 해가 떨어지면은 잔다고. 그리고 또 밤마가 부면은 파도가 더 많지.
그 밤에 바람이 불면은 밤마가 불면은 배들이 요동을. 이 노력을 더
해.(강원도 강릉 김준래)

(13)의 ‘밤마’는 해가 떨어진 후 밤에 부는 바람을 가리키는 말로 ‘밤+마(맞바람)’의 구성으로 파악된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셋바람과 마파람(남풍)의 결합형인 ‘셋마’와 같은 어휘가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바람의 특성상 시간의 범주와 결합이 쉽지 않음에도 시간의 흐름을 표기하는 ‘밤’과 마파람의 ‘마’가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강릉 지역에서 사용되는 ‘밤마’는 ‘늦마’와 비슷한 의미로 늦은 시기에 부는 바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는 시기를 나타내는 표현인 ‘찬절’과 같은 범주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바람의 모양과 성질에 따른 명칭

다음은 바람이 부는 모양과 그 성질을 나타내는 바람의 명칭을 나타낸 것이다.

23) ‘가을게 돼서 맛있지. 가을 때. 언제든지 찬절 날 때 찬절 날 때 먹은 고기라 젤 맛이 좋은 기라.(울릉도 정상권, 견학용 울릉도)’와 같이 ‘찬절’은 어촌 지역에서는 주로 시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찬절’은 주로 9월부터 11월까지 추워지기 시작하는 시기,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시기를 가리키는 말인데, 때에 따라서는 차가운 바람을 의미하기도 했다.

(14) 가. 바람이 인자 휘 돌아치는 거. 오방풍.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하는 거 오방풍이라.(경북 울릉도 견학용)

나. 광풍. 그거는 강풍을 미칠 광잔데. 미칠 광자라 광풍이라 그래.(경
북 울릉도 임기학, 견학용)

다. 바람이 썰썰하게 불고 곱게 불면 순풍. 그래. 왈각 부는 거 악풍.(경
북 울릉도 견학용)

라. 순풍. 순풍. 고건 순풍이라. 순풍은 술. 술술 부는 기. 곱. 곱게 부는
기 술술.(경북 울릉도 임기학, 정상권, 견학용)

마. 내. 내. 넛바람. 내바람.(경북 울릉도 김성호)

(14가)의 ‘오방풍’은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없이 몰아치는 바람을 가리키는 말로 한자어 ‘오방(五方)’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즉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중앙까지 바람이 불어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를 모를 정도로 미친 듯이 분다는 말로 ‘오방풍’을 말하고 있었는데, (14가)의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14나)의 ‘광풍’은 굉장히 센 바람을 가리키는 말로 마치 미친 듯이 온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고, (14다)의 ‘악풍’은 급하고 강하게 오는 바람으로 어촌에서 큰 해가 되는 바람인 샛바람 등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다. 이와 반대로 (14라)의 ‘순풍’은 천천히 곱게 오는 바람을 말한다. ‘순풍’과 같이 적당하게 오는 바람을 ‘시원하게 분다, 마침맛게 분다’로 표현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바람은 그 기질에 따라 ‘순풍’과 ‘악풍’으로 나누는데 이 중 ‘악풍’에 해당하는 것이 ‘광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바람의 세기와 기운을 가르켜 ‘바람쌀(살)’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14마)의 ‘내바람’ 또는 ‘넛바람’은 가을에 많이 부는 바람으로 서풍을 가리키는 말이다. ‘들바람’의 대응되는 말인 ‘내바람’은 가을철 부는 바람을 말한다. 즉, ‘내바람’은 앞서 제시된 ‘된새, 급새’와 함께 바람의 성질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방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한편 바람은 다른 기상 요

소와 함께 나타나기도 했음을 (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 가. 인자. 인자 비가 오고 이런 걸 빗바람이라고. 빗바람이 몰아친다.

빗바람 인제 비하고 같이 바람하고 오는 거.(울릉도 견학용)

나. 서쪽에서는 청풍이라고 하나. 서쪽은 서풍. 그렇게도 쓰고 청풍바람 분다 이렇게도 쓰고. 여 서쪽에서 청풍바람 분다 이라고. 청풍. 북청 뭐. 아이지. 청풍은 서풍을가 청풍이라 하고.(경북 울릉도 견학용, 견학용, 김형수)

(15가)의 ‘빗바람’은 비와 바람이 함께 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표준국어대사전》(1999)에도 북한어로 등재되어 있다. 보통 태풍이 올 때 많이 부는 바람으로 ‘비+바람’의 합성어 구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울릉도 지역에서 서풍을 주로 가리키는 (15나)의 ‘청풍’은 부드럽고 맑게 부는 바람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말이다. ‘청풍’의 의미는 옛 글에도 나타나는 ‘산수가 좋은 곳에 앉아 있었다니 청풍이 백운(白雲)을 몰아 쫓가를 지나가더라.’와 같은 구절과 같은 의미로 짐작할 수 있었다. ‘청풍’은 ‘-풍’ 뒤에 또 다시 고유어 ‘바람’이 결합한 ‘청풍바람’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회오리바람에 관한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다음의 (16)과 같다.

(16) 가. 돌풍. 돌풍도 있어. 있는데 여도 불면 돌개바람 분다이라지.(경북 울릉도 견학용, 김형수)

나. 풍 바람이 씨게. 돌. 돌개바람이 올 거 같으면은 풍을 풀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풀어주면은 배가 자빠진다고.(강원 강릉 김준래)

- 다. 호도로바람이나. 팽팽팽팽 팽팽 이래 막 돌아치는 거 안 있어. 호도로바람이라 카는 건 바람이 이래 획 소리가 나고.(경북 울릉도 정상권, 견학용)
- 라. 그. 그거는 획바람이야. 고기 인자 바닷물이 획~ 돌아치. 획바람이잖아. 소리가 획~ 나거든.(경북 울릉도 견학용)
- 마. 회오리바람은 주로 인제 여 뭐야. 급새 같은 데 이런 데서 돌개바람 많이 생기지. 회오리라 그러지.(강원 강릉 김준래, 박종석)
- 바. 그거는 회오리바람. 바다 쓰는 사람들은 돌풍이라 이란다.(경북 경주 김방우)

(16가, 나)에 나타난 ‘돌풍’과 ‘돌개바람’은 갑자기 돌면서 부는 바람을 말하고, (16다)의 ‘호도로바람’은 (16라, 마, 바)의 ‘회돌이바람’, ‘획바람’, ‘회오리바람’과 같은 말로, 회돌아서 치는 바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회돌아서 치는 바람이라서 모두 ‘획~, 획~’ 소리가 난다고 한다. 이러한 의미적인 면을 생각하면 (16)의 바람 명칭은 모두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위치에 따른 명칭

바람 명칭은 때로는 위치와 관련하여 분화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 (17) 뒤바람이라는 거는 뒤바람이라는 거는 보통 내부는 거 보고 뒤바람이라 그러지.(강원도 강릉 김준래)

내부는 바람을 가리키는 서풍의 다른 이름으로 ‘뒤바람’이 나타났다. 배를 타고 동해 바다로 나갈 때 동해의 뒤쪽인 서쪽, 즉 배 뒤에서 오는 바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뒷바람’은 내륙 지방에서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때는 어촌 지역과 방위에서 차이가 있었다. 어촌에서는 서쪽을 나타낸 위치가 내륙 지방에서는 남향인 가옥을 기준으로 뒤쪽에서 부는 바람, 즉 북풍을 가리키기도 했었다.²⁴⁾

6) 지명에 따른 명칭

박성중(1995:428)은 강원도 지역의 바람 명칭을 정리한 바 있다. 박성중(1995)에서도 강릉 지역의 지명과 관련되는 바람의 명칭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원산매기, 설악산매기’이다. 실제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어휘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다음의 (18)과 같다.²⁵⁾

- (18) 가. 여기서 이리 보면 저 보면 높은 산에 보면 삼형제봉이라고 있어.
삼형제봉. 그 저 옛날부터 삼형제봉이었었는데 거기서 바람이 나오
는 것이 거 설악산내기라고 그 저 설악산 저 우리 야영 설악산 있
지. 설악산 있지. 원산내기. 원산내이. 응 이거 여서 부르기는 설악
산내기. 설악산바람. 바람이구나 그래.(강원 강릉 김진호)²⁶⁾
나. 그래 웃굴새가 인제 거거. 거서 나오지. 마 다 포함된다. 웃고새는
두 거. 두 가지.(강원 강릉)

24) ‘뒤바람’은 《표준국어대사전》(1999)에도 등재된 어휘였는데 강릉 지역의 방언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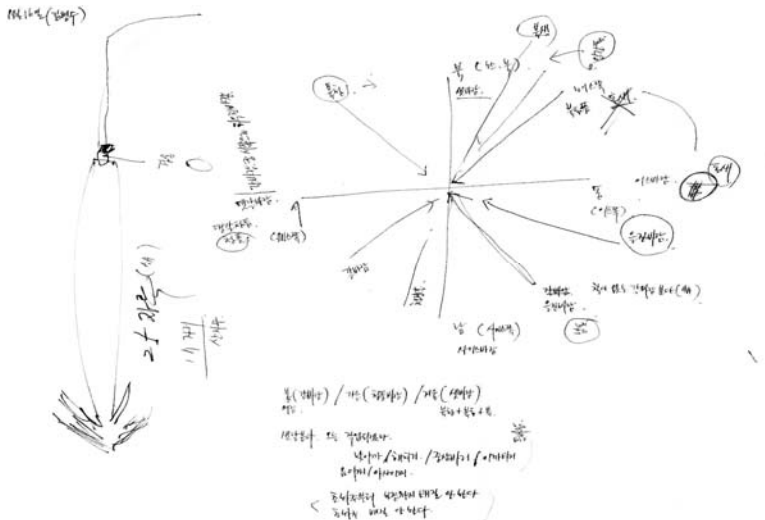
25) 본 조사에서는 ‘원산내기, 설악산내기’로 나타났고, ‘새대바람’은 ‘새댓바람, 새대들바람’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2011)를 참고하기 바란다.

26) 이와 같은 표현은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 1) 사천내기라 그러는 기. 우리가 무식한 말로 사천내이라 그러지. 요기 사천 같은 사천개에서 나오는 바람.(경남 통영 옥지도)

예 2)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다가 동풍은 셋바람, 된바람은 북쪽에서 오는 겁니다. 편갈은 편갈이라 하는 건 사천내이라고.(경남 통영 옥지도)

(18가)에 나타난 ‘설악산내기, 원산내기(이), 설악산바람’은 (18나)의 ‘웃고새, 웃굴새’의 하위 범주이다. ‘웃고새, 웃굴새’는 ‘원산내기, 설악산내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위쪽 지역인 원산과 설악산에서 오는 바람을 통칭한 것이다. 그러나 지리적인 차이로 인해 ‘원산내기(이)’는 원산이 있는 북쪽의 바람을 말하고, ‘설악산내기, 설악산바람’은 설악산이 있는 북서쪽의 바람을 말하고 있었다. 강원도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이들은 단순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설악산바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명+-내기(내이)’의 구성을 지닌다. 현재 국어사전에 등장하는 접미사 ‘-내기’는 ‘서울내기, 시골내기’와 같이 지역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곳 출신의 사람’의 뜻과 알잡는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데 이와 같은 구성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 어휘에 나타난 ‘-내기(내이)’가 설악산과 원산에서 온 바람이라는 의미는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출신 지역을 나타내고 있지만 바람의 세기가 강하고 매섭다는 제보자의 말로 볼 때 이들을 알잡아 표현한 의미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서울내기’와 같이 사람의 출신 지역을 뜻하는 접미사 ‘-내기’가 붙은 어휘의 형태들은 다른 바람과 달리 바람을 의인화한 표현으로 짐작된다. 제보자들은 이 바람을 산비탈면을 따라 내리부는 바람으로 바람이 높은 산줄기를 넘거나 또는 산악지대의 비탈면을 따라 내리볼 때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했는데, 동사 ‘내다’의 의미와도 무관하지 않음을 추정하게 한다. 이는 동사 ‘들다’와 관련된 ‘들바람’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나타난 ‘내바람’의 ‘내-’와도 관련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그림 2〉 실제 조사에 나타난 바람 명칭

IV. 결론

이 글은 동해안 어촌 지역에서 사용되는 바람의 명칭을 대상으로 어휘의 분화 기제를 살펴보고, 분화 기제에 따라 명칭을 나눈 후 이에 따른 어휘의 분화 양상과 그 명명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바람 명칭은 사전상에 제시된 ‘동풍, 남풍’과 같은 어휘 외에도 다양한 어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어촌 생활어에서 나타나는 바람의 명칭을 모두 추출하여 그 의미 유형별로 구분한 결과 ‘방위’를 중심으로 ‘속도 및 세기, 시기, 모양과 성질, 시간, 위치, 지명, 계절’로 어휘 확장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에서 논의한 어휘 목록과 분화 양상을 <표 2>로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 방위:

(동풍) 동풍, 들바람, 셋바(파)람, 동새(풍), 동셋바람, 들분다, 이스바람
(동남풍) 남동풍, 동남풍, 갈바람, 남쪽하고동쪽생간에서부는기, 마대로 들어분
다, 동갈, 을진(바람)

(남풍) 갈바람, 마파람, 남서풍, 오수바람, 남갈, 사이스바람

(남서풍) 남서풍, 하늬바람, 마대들바람, (마갈수)바람, 마대로 들어온다, 갈바
람, 댕갈(바람), 처진갈

(서풍) 서풍, 청풍(바람), 하느바람, 내바람, 내부는바람, 내분다, 내부는것, 웨스
바람

(북서풍) 북서풍, 서북풍, 북청, 청풍, 댕갈(청풍), 북서계절풍, 디갈기, 뒤갈기
(바람), 웃고(굴)새, 설악산내기, 설악산바람

(북풍) 셋바람, 북풍, 북바람, 북새, 북청, 웃고(굴)새, 원산내기(내이), 노스바람

(북동풍) 셋바람, 북동풍, 동새, 인간풍, 마대로 들분다, 마대들바람, 새대로 들
어오다, 새뎃바람, 새대들바람, 들바람, 새대로들어오는거, 들어오는바람

- 속도, 세기: 급새, 급풍, 왁새, 된새, 된갈

- 계절: 갈바람(된갈(댄갈), 처진갈, 남갈 갈바람 등), 북서계절풍

- 모양과 성질: 오방풍, 돌개바람, 돌풍, (회오리)바람, 호도로바람, 헛바람, 광풍,
순풍, 악풍, 청풍, 내바람, 빗바람

- 시간: 밤마

- 위치: 뒤바람

- 지명: 원산내기, 설악산내기, 설악산바람

〈표 2〉 바람의 분화 기제에 따른 분화 양상과 어휘 목록

체계적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과 실질적 어휘 자료를 비교해 바
람의 의미 분류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바람 명칭의 의미 분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질적인 어휘 조사를 한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어촌의 독특한 환경이 바람 명칭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고 활발한
생산적인 쓰임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질적인 어휘 조사

는 어촌 생활어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질 것이다. 또한 어촌 생활과 관련된 어휘를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채록한 결과 지금까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국어의 어휘, 의미를 발굴하였는데 이는 바람 관련 어휘장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어 어휘 체계를 정리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어촌 지역에 관련된 국어 문화 아카이브를 구축하게 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와 더불어 바람의 어원과 그 의미 변화 과정을 함께 제시하면 아직은 해결하지 못한 ‘인간, 을진, 오수’와 같은 바람 명칭의 명명 방법을 더욱 명확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김지숙 외, 『2010년도 민족생활어 조사5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국립국어원, 2010.
- _____,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5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국립국어원, 2011.
- _____,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5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국립국어원, 2012.
- _____, 『울릉도 어촌지역의 오징어의 명칭과 의미 분화 연구』, 『사회언어학』 21(3), 한국사회언어학회, 2013, pp.83-111.
- _____, 『행위자의 관점에 따른 명태 명칭의 분화 양상』, 『사회언어학』 20(2), 한국사회언어학회, 2012, pp.149-184.
- 박성중, 『강원 어촌지역 전설 민속지』, 강원도(동해출장소), 국학자료원, 1995.
- 박정해, 『錦囊經에 나타난 바람의 의미와 논리성』, 『동방학』 28,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3.

- 안옥규, 『어원사전』, 한국문화사, 1996.
- 왕한석, 『한국의 언어 민속지 2, 전라남북도편』,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0.
- _____, 『한국의 언어 민속지: 경상남북도편』,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2.
- 이기문,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1991.
- 이익섭, 『韓國 漁村 言語의 社會言語學的 考察』, 『진단학보』 42, 진단학회, 1976, pp.61-97.
- _____, 『방언학』, 민음사, 1993.
- 이훈중, 『민족생활어사전』, 한길사, 1992.
- 임지룡, 김동환 역, 『언어·마음·문화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역락, 2010.
- _____,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008.
- 조항범, 『국어어원론』, 개신, 2009.
- 최명옥, 『방언 자료의 수집과 정리』, 『새국어생활』 11(2), 국립국어연구원, 2001, pp.23-35.
- _____, 『경북 동해안 방언연구 - 영덕군 영해면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총서 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대백과사전』, 1999.
- 한국향토문화전자사전 사이트 www.grandculture.net.
- 홍순탁, 『흑산도 지명고』, 전남대학교 논문집 8, 1963, pp.1-12.

Abstract

**Study on the Nomenclature of Naming Wind
in Everyday Words used at Fishing Villages.**

Kim, Ji-Suk

As a subject of study on the classification mechanism of a word, this study examines everyday words of naming wind used at fishing villages in the east coast of Korea. Words of representing wind are classified to examine the classification patterns and the nomenclature depending on the classification mechanism. As a result, nomenclature of wind is confirmed to exist in various ways, other than the dictionary words such as “east wind, south wind, and etc”. When names of wind in everyday words at fishing villages are all retrieved and classified according to the meaning pattern, it is found that the word extended to various words representing velocity, intensity, shape and characteristics, direction, places, season, and timing, based on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 focussed on the wind direction. Through substantial on-site survey of words performed in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special environment at fishery villages affects the nomenclature of wind and so names of wind can be classified depending on the way of naming.

Key Word : Fishing Village of East Sea(Gangneung, Gyeongju, Ulleungdo),
Semantic Divergence of Wind, Conjunctive Circumstances, Semantic
Features, Lexical Items, classification mechanism of the vocabulary

김지숙

소속 : 경성대학교 창의인재대학 교수

전자우편 : jiya@ks.ac.kr

이 논문은 2015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5년 11월 3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